

기후분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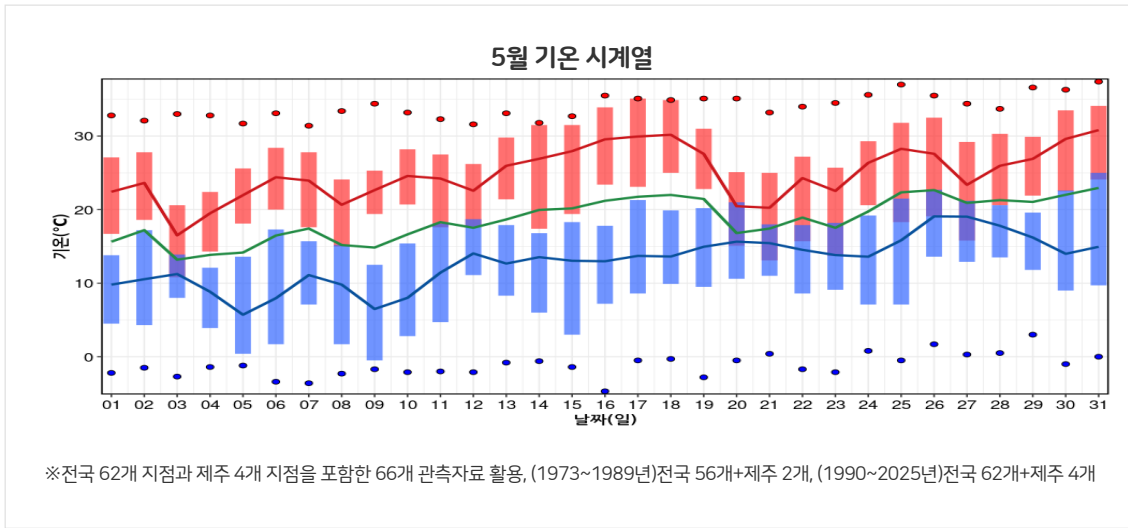
5월 우리나라 기후동향

요약

5월 평균기온 역대 1위, 폭염일수 역대 2위, 이른 폭염·열대야 발생

- 평균기온 18.6°C로 평년(17.3°C) 보다 1.3°C 높아 역대 1위, 폭염일수(0.5일) 역대 2위, 경상 지역 관측 이래 가장 이른 폭염
- 20~21일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한 차례 많은 비 집중, 강수량 123.5mm로 평년(102.1mm) 대비 122.0%로 평년 수준

기온



- ▶ **최고기온**
- ▶ **평균기온**
- ▶ **최저기온**
- ▶ 막대: 전국 기온 범위
- ▶ 실선: 전국 평균
- ▶ 점: 1973년 이래 극값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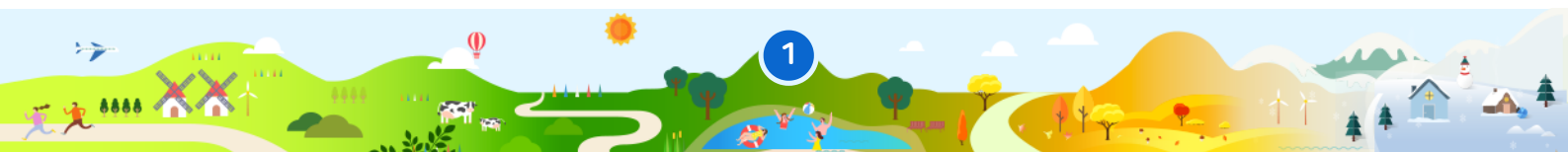
- 중순과 25~31일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전국 평균기온은 18.6°C(역대 1위)로 평년(17.3°C)보다 1.3°C, 작년(16.8°C)보다 1.8°C 높았습니다. 16~18일에는 경상도 지역에서 관측 이래 가장 이른 폭염이 발생하였고, 5월 전국 폭염일수는 0.5일(2위)로 이례적인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30일에는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작년 대비 19일 빨랐습니다.

기온 관련 기상요소별 순위 (1973년 이후 전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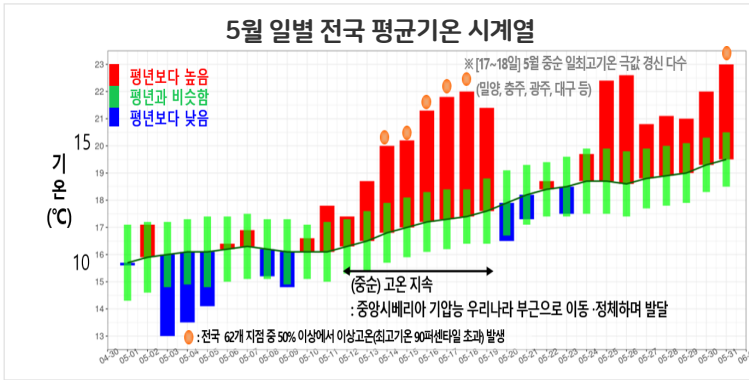
구분	2026년 5월			
	평균값 (°C)	평년값 (°C)	평년편차 (°C)	순위(상위)
평균기온	18.6	17.3	+1.3	1위
평균 최고기온	24.9	23.5	+1.4	6위
평균 최저기온	12.7	11.6	+1.1	1위

※ 전국평균: 1973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1973~1989년) 56개 지점, (1990~2026년) 62개 지점)

※ 평년값: 1991~2020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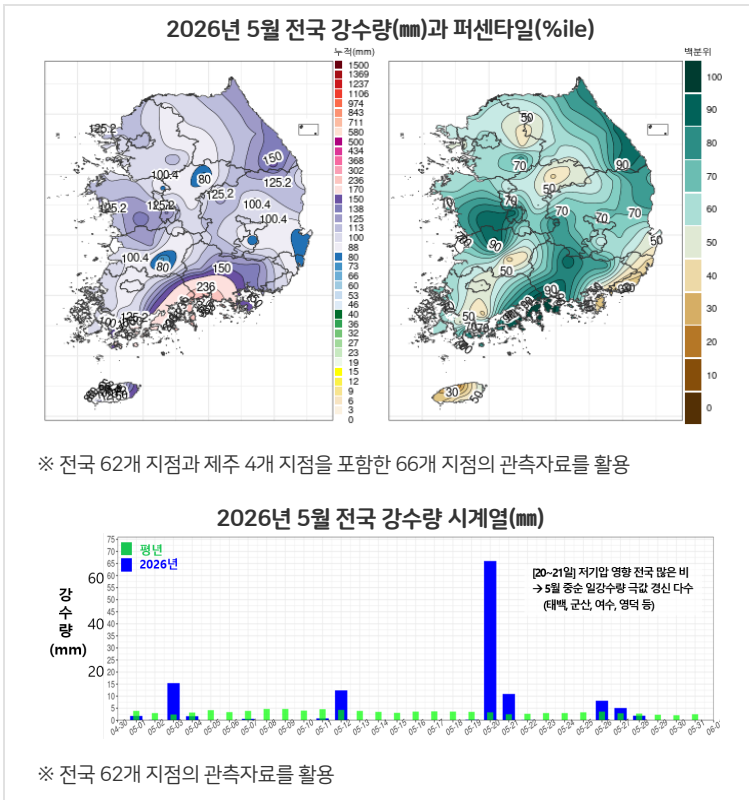
기온



현황

- 상순에는 상층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 중순 이후에는 중앙시베리아 기압능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수일 동안 우리나라 부근에 정체·발달하여 기온이 상승하였습니다. 중순 기간의 전국 평균기온은 19.7°C로 동일 기간 대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16~18일에는 구미, 거창, 문경, 안동, 영천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이른 폭염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수량



현황

- 5월 전국 강수량은 123.5mm로 평년(102.1mm) 대비 122.0% 수준으로 평년과 비슷하였고, 작년(116.6mm)보다는 6.9mm 많았습니다. 강수일수도 9.1일로 평년(8.7일)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원인

- 20~21일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5월 강수량의 대부분(62.3%)이 집중되었습니다.
- 19일까지 고온을 발생시켰던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저기압이 발달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영동, 전남해안,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100~2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 관련 기상요소별 순위 (1973년 이후 전국평균)

구분	2026년 5월		
	값	퍼센타일(강수량)/평년편차(강수일수)	순위(상위)
강수량	123.5mm	61.7%ile	19위
강수일수	9.1일	+0.4일	18위

※ 전국평균: 1973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1973~1989년) 56개 지점, (1990~2026년) 62개 지점)

※ 평년값: 1991~2020년 적용



이상고온 및 기상가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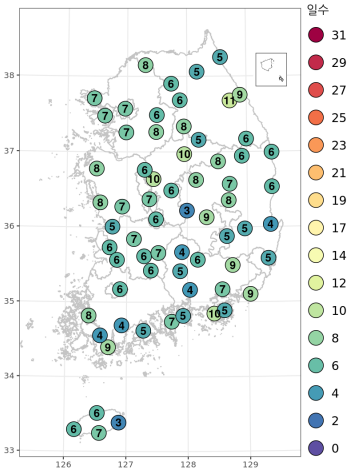
이상고온·저온 발생일수

▶ **이상고온(저온) 발생일수:** 이상고온(저온)은 평년(1991~2020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극한현상으로 일최저·최고기온이 90퍼센타일 초과(10퍼센타일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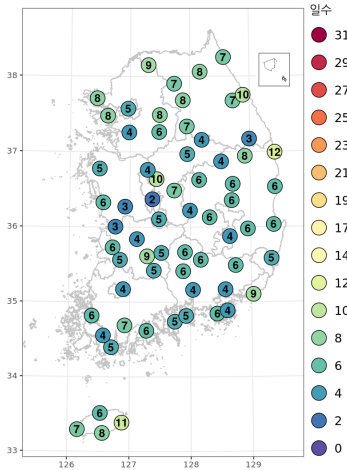
※ 퍼센타일: 평년(1991~2020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기온을 비교하여 작은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 나타내는 백분위수



최고기온 기준 이상고온 발생일수(일)



최저기온 기준 이상고온 발생일수(일)



• **최고기온 기준 이상고온 발생 일수: 6.6일(작년 1.4일)**

• **주요지점 발생일수:** 대관령 11일, 충주 10일, 청주 10일, 통영 10일, 강릉 9일, 부산 9일, 완도 9일, 구미 9일

• **최저기온 기준 이상고온 발생 일수: 5.9일(작년 5.2일)**

• **주요지점 발생일수:** 울진 12일, 성산 11일, 강릉 10일, 청주 10일, 철원 9일, 부산 9일, 임실 9일

* 평균방법: 각 지점별 이상기온 발생 일수 산출 후 62개 지점 평균

기상가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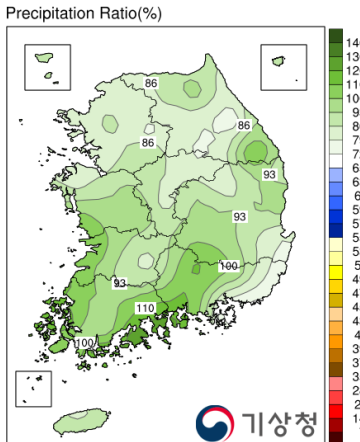
▶ **기상가뭄:** 최근 6개월(25.12.1.~26.5.31.) 누적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은 현상

▶ **기상가뭄 판단 기준:** 최근 6개월 강수량(표준강수지수*)에 따라 약한-보통-심한-극심한 가뭄인 4단계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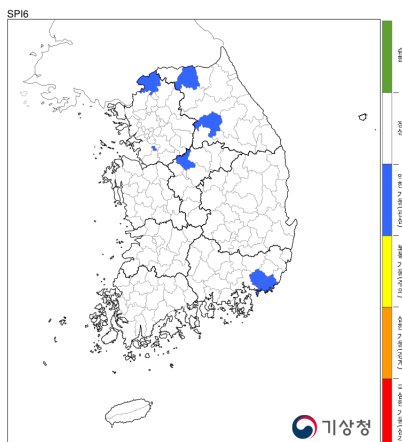
*표준강수지수(기상청): 최근 누적강수량과 과거(1973년~전년) 동일기간의 강수량을 비교하여 가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습함(1.0 이상), 정상(0.99~0.99), 약한 가뭄(-1.00~1.49), 보통 가뭄(-1.50~1.99), 심한 가뭄(-2.0 이하), 극심한 가뭄(-2.0 이하 20일 이상)

강수평년비(%)



가뭄 현황



• **6개월(25.12.1.~26.5.31.) 누적강수량:**

- 전국 누적 강수량 316.0mm 로 평년(340.2mm) 대비 92.3%입니다.

※ 전국 평년비: 제주(4개 지점)를 제외한 62개 지점의 평년비를 평균한 값

• **가뭄 현황(5.31. 기준):**

- 5월 중순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있었으나, 5월 20~21일 강수로 인해 대부분 해소되었고, 현재 7개 시·군에 기상가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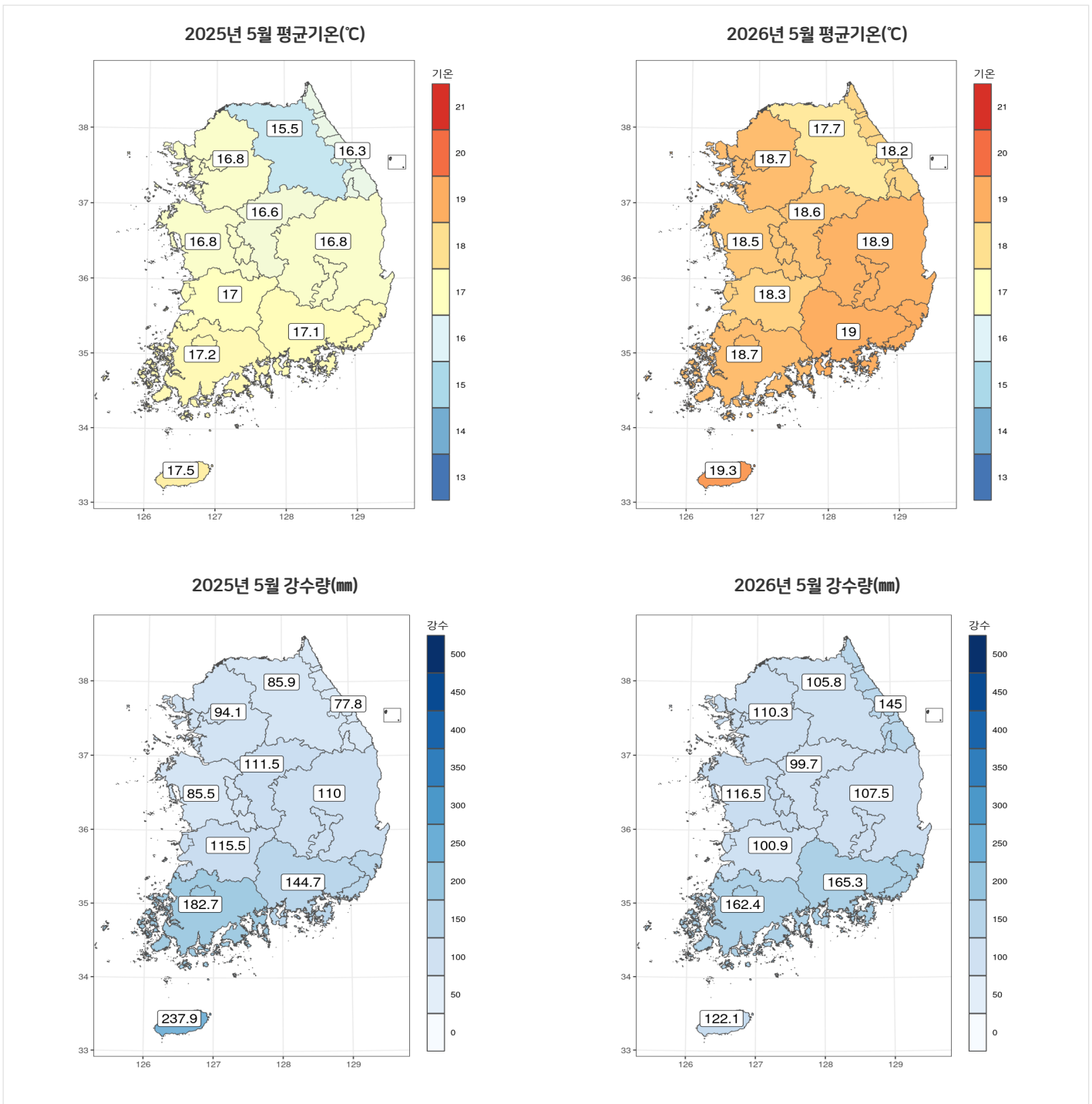
※ 약한 가뭄 지역: 연천군, 오산시, 화천군, 횡성군, 음성군, 부산광역시, 김해시

※ 전국 62개 지점과 제주 4개 지점을 포함한 66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

주요 기후요소 비교 - 기온·강수량

작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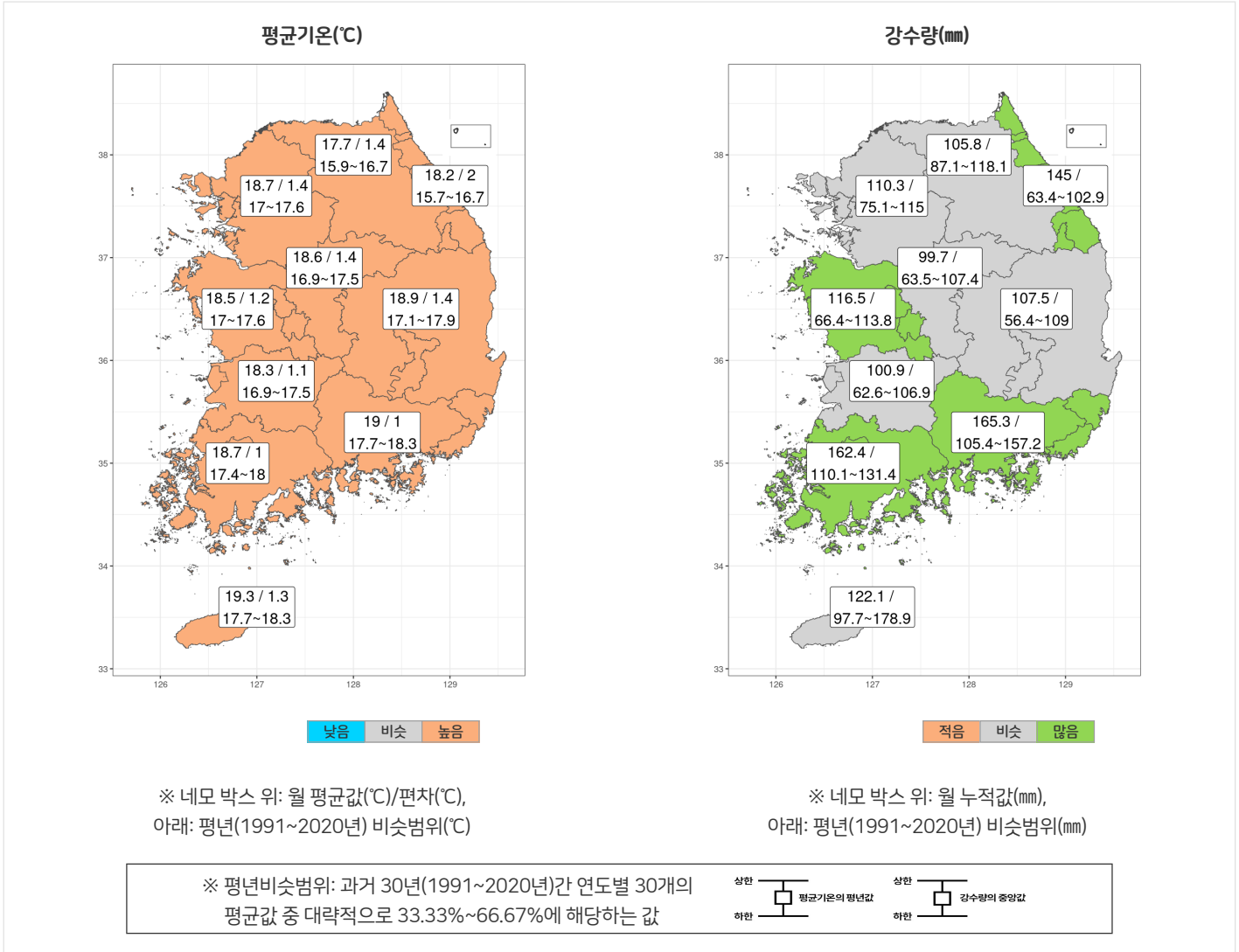
- 5월 전국 평균기온은 작년보다 1.8°C 높았고, 강수량은 작년보다 6.9mm 많았습니다.
- [기온] 올해(18.6°C) vs 작년(16.8°C)
전국적으로 기온이 작년보다 높았고, 작년 대비 1.3~2.2°C 분포를 보였습니다.
- [강수] 올해(123.5mm) vs 작년(116.6mm)
충북, 전라, 제주에서는 강수량이 작년보다 적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많았으며, 작년 대비 -115.8~67.2mm 분포를 보였습니다.



※ 전국 66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제주 평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4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

평년 비교

- 5월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1.3°C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102.1mm) 대비 122.0% 수준으로 평년과 비슷하였습니다.
- [기온] 전국 평균기온은 18.6°C로 평년(17.0~17.6°C)보다 높았으며, 전국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 [강수량] 전국 강수량은 123.5mm로 평년(79.3~125.5mm)과 비슷했으며, 강원영동,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월별 평균기온 평년편차와 순위 (2025년 6월 ~ 2026년 5월)

년/월	2025년							2026년					기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월평균(°C)	22.9	27.1	27.1	23.0	16.6	8.5	2.4	-1.6	2.7	7.4	13.8	18.6	
평년편차(°C)	+1.5	+2.5	+2.0	+2.5	+2.3	+0.9	+1.3	-0.7	+1.5	+1.3	+1.7	+1.3	평년(1991 ~ 2020년)
순위(상위)	1	2	2	2	1	11	10	37	9	9	3	1	1973 ~ 2026년

※ 전국평균 및 순위: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1973~1989년) 56개 지점, (1990~2026년) 62개 지점)

주요 기후요소 비교- 일교차 10°C 이상·폭염일수

작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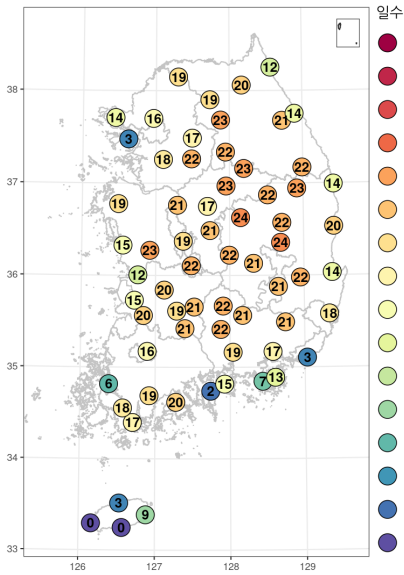
• [일교차 10°C 이상 일수] 올해(21.2일) vs 작년(18.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 10°C 이상 일수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많았습니다(평년 2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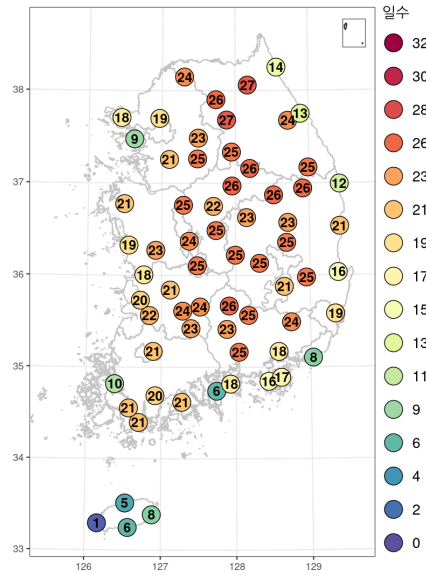
• [폭염일수] 올해(0.5일) vs 작년(0.0일)

작년에는 폭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강릉, 경상 지역에서 폭염이 발생하였습니다(평년 0.1일). 특히, 구미, 대구, 밀양에서는 폭염이 4일 발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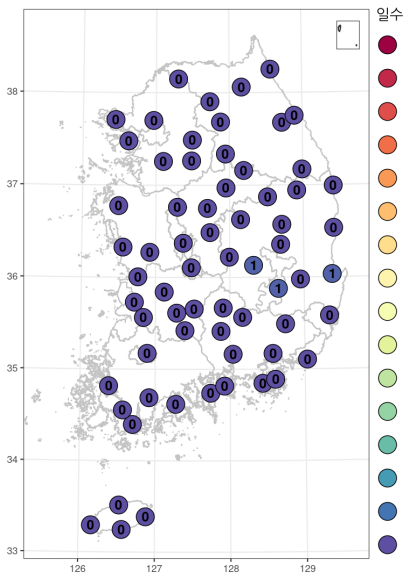
2025년 5월 일교차 10°C 이상 일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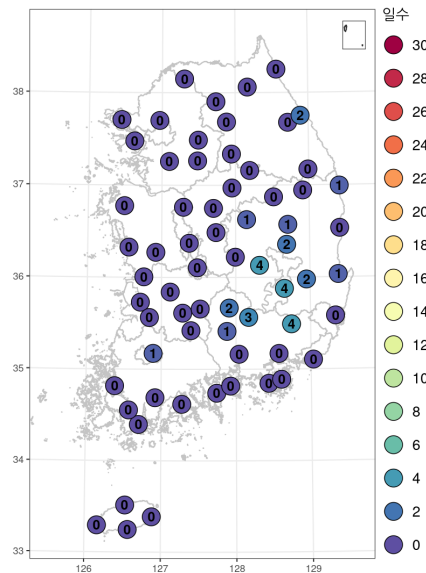
2026년 5월 일교차 10°C 이상 일수(일)



2025년 5월 폭염일수(일)



2026년 5월 폭염일수(일)



※ 일교차 10°C 이상 일수: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의 차이가 10°C 이상인 날의 일수

※ 폭염일수: 일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날의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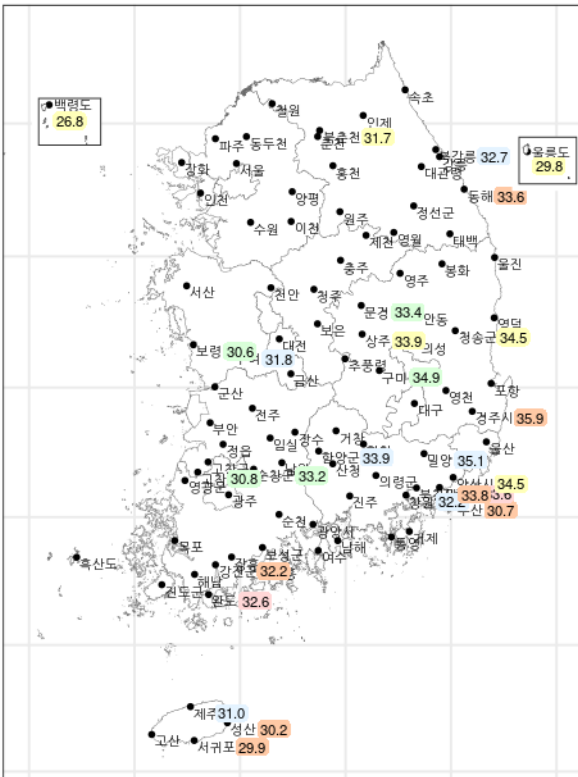
주요 기후요소 비교-극값

우리나라 극값 현황

- [기온] 중~하순에 맑은 날씨로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일최고기온 최고 5위 이내를 기록한 지점이 있습니다.
- [강수량] 20~21일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강수량 최다 5위 이내를 기록한 지점이 있습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일최고기온 최고(°C)



1위: 김해시(33.6°C), 완도(32.6°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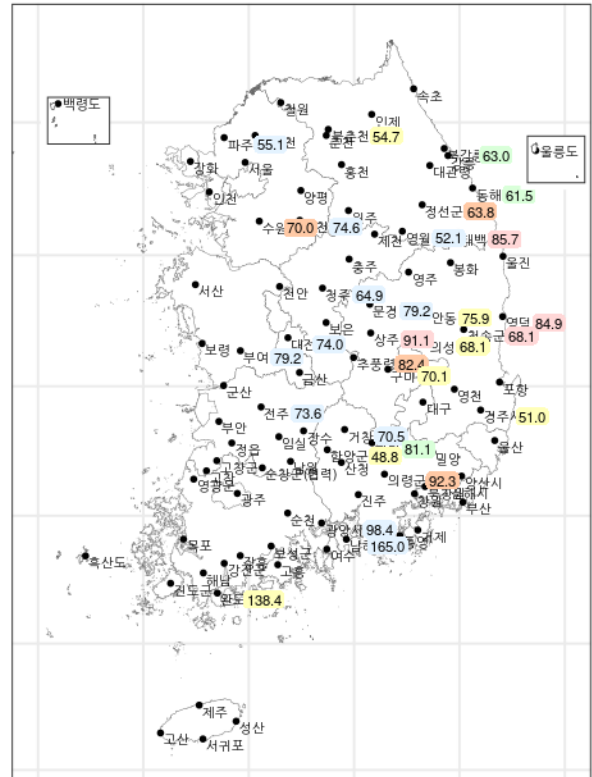
2위: 경주시(35.9°C), 북왕원(33.8°C), 동해(33.6°C), 강진군(32.2°C), 부산(30.7°C), 성산(30.2°C), 서귀포(29.9°C)

3위: 양산시(34.5°C), 청송군(34.5°C), 상주(33.9°C), 북춘천(31.7°C), 울릉도(29.8°C), 백령도(26.8°C)

4위: 구미(34.9°C), 문경(33.4°C), 순창군(협력)(33.2°C), 고창(30.8°C), 보령(30.6°C)

5위: 밀양(35.1°C), 함양군(33.9°C), 북강릉(32.7°C), 창원(32.2°C), 부여(31.8°C), 제주(31°C)

일강수량 최다(mm)



1위: 상주(91.1mm), 태백(85.7mm), 영덕(84.9mm), 청송군(68.1mm)

2위: 의령군(92.3mm), 추풍령(82.4mm), 수원(70mm), 정선군(63.8mm)

3위: 완도(138.4mm), 안동(75.9mm), 구미(70.1mm), 의성(68.1mm), 북춘천(54.7mm), 경주시(51mm), 함양군(48.8mm)

4위: 합천(81.1mm), 북강릉(63mm), 동해(61.5mm)

5위: 남해(165mm), 광양시(98.4mm), 부여(79.2mm), 문경(79.2mm), 이천(74.6mm), 대전(74mm), 전주(73.6mm), 거창(70.5mm), 청주(64.9mm), 파주(55.1mm), 영월(52.1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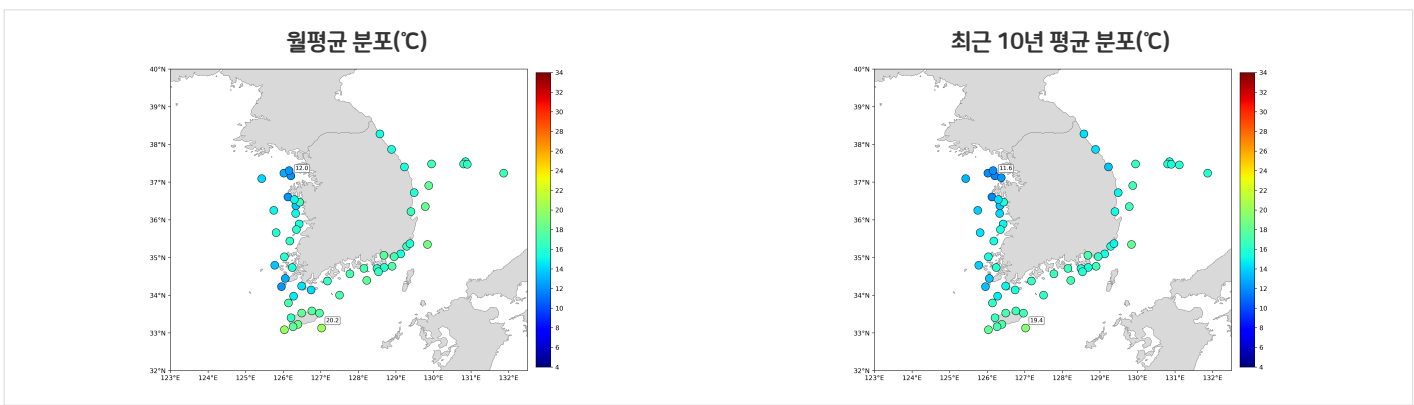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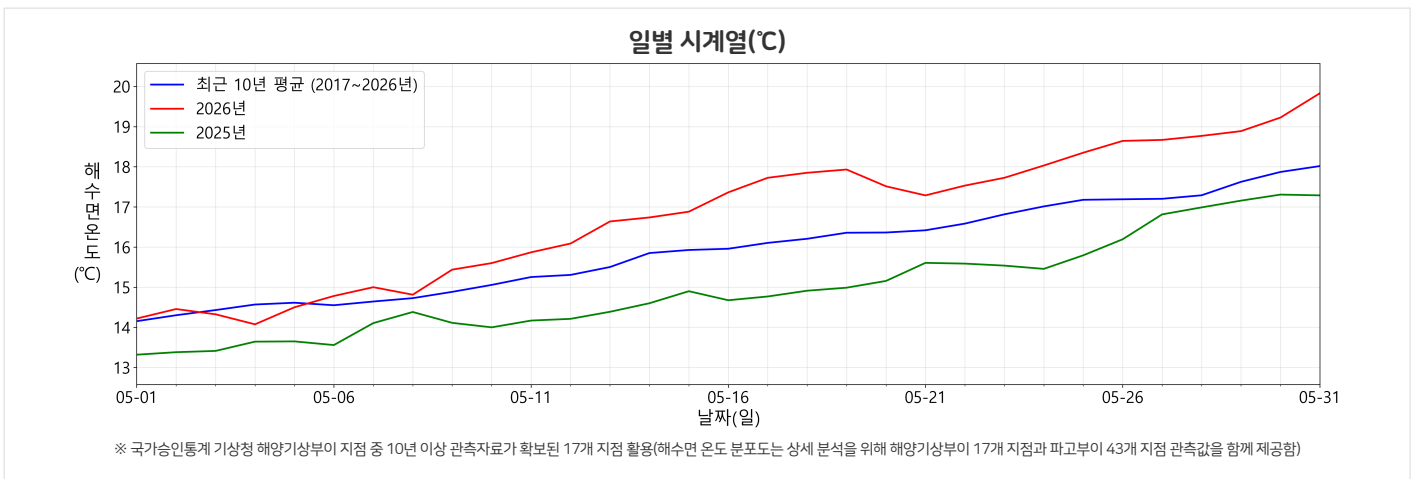
※ 각 지점별 관측개시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관측한 93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

5월 해양 기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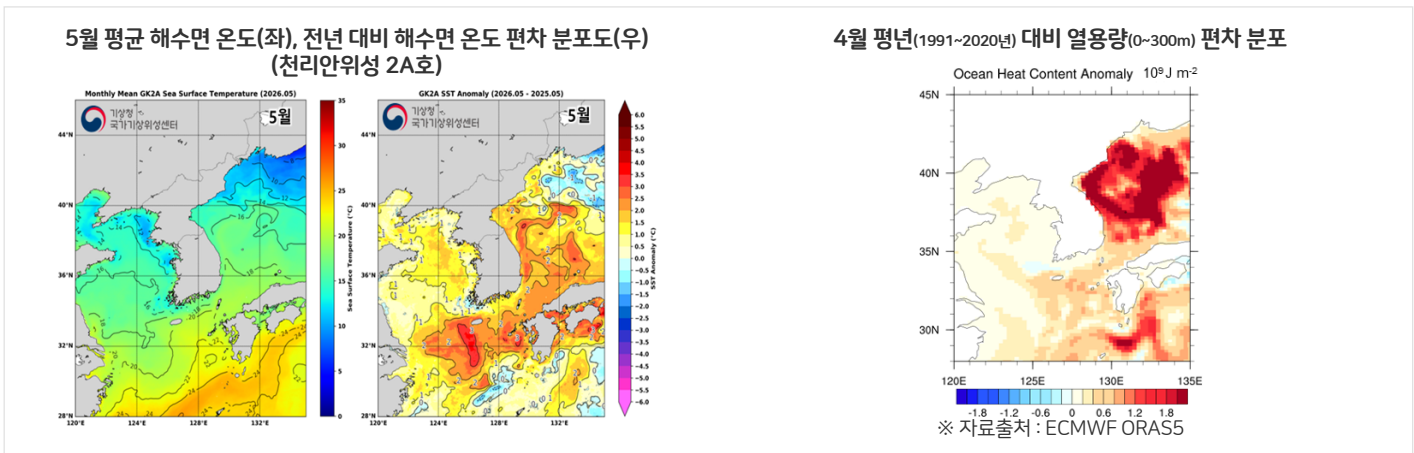
한반도 해수면온도

- [관측자료]** 5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16.9°C로 최근 10년(평균 16.0°C) 중 가장 높았고, 작년보다 2.0°C 높았습니다. 해역별로는 서해(14.5°C), 남해(18.4°C), 동해(17.9°C)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작년보다 각각 1.5°C, 2.0°C, 2.6°C 높게 나타났습니다.
 - ※ 해역별 평균 해수면 온도(최근 10년 평균 대비 편차): 서해 14.5°C(+0.7°C), 남해 18.4°C(+1.1°C), 동해 17.9°C(+1.0°C)
- [재분석자료]**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양 열용량*(수심 약 300m)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따뜻한 해류의 영향이 작년보다 강하게 지속되면서 5월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평균과 작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 일정 수심 범위의 바닷물이 저장하고 있는 열의 총량

5월 해수면 온도 관측자료



위성 관측 및 재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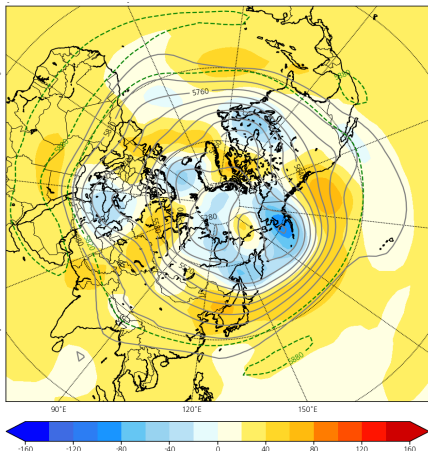


기후학적 원인분석

전 지구 순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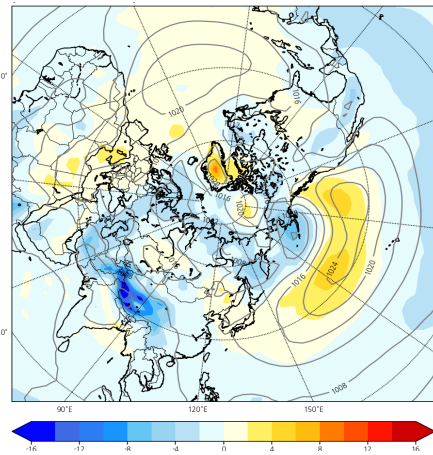
- **[500hPa 지위고도]** 유럽, 아프리카, 바렌츠해~우랄산맥 부근, 우리나라, 캐나다 서부 등에서 평년보다 높은 지위고도가 나타났고, 북유럽, 카스피해, 캄차카반도, 알래스카, 캐나다 동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지위고도가 나타났습니다.
 - **[해면기압]** 유럽, 우리나라, 그린란드, 북아프리카, 북동태평양 부근 등에서 평년보다 높은 해면기압이 나타났고, 북유럽, 카스피해, 중앙아시아, 캄차카반도,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서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해면기압이 나타났습니다.
- ※ 지위고도: 지면에서 특정 기압이 되는 높이로 지위고도가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을 의미

500hPa 지위고도(m)



- ▶ 채색: (빨강)평년(1991~2020년)보다 높은 지위고도, (파랑)평년보다 낮은 지위고도
- ▶ 실선: (검정)5월 평균 지위고도, (초록)5월 평년 지위고도

해면기압(h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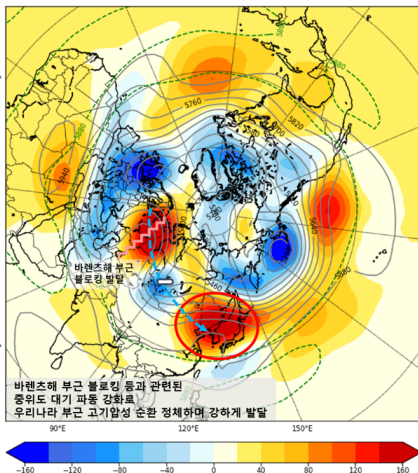


- ▶ 채색: (빨강)평년(1991~2020년)보다 높은 해면기압, (파랑)평년보다 낮은 해면기압
- ▶ 실선: (검정)5월 평균 해면기압

※ 자료출처: 미국 환경예측센터 NCE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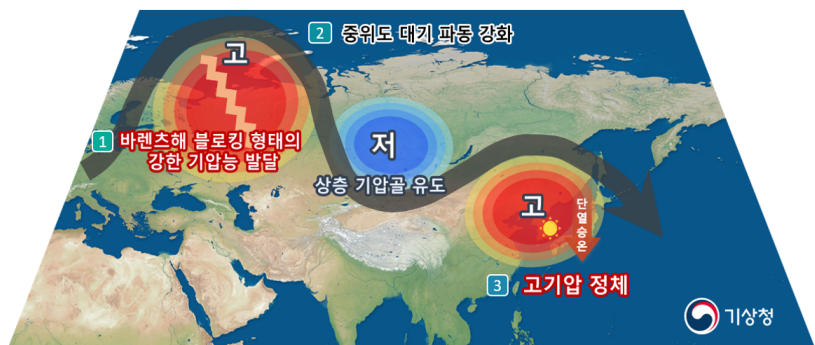
중위도 대기 파동 강화

상층(500hPa) 지위고도 편차 분포도(13~19일)



바렌츠해 부근 블로킹 형태와 관련된 중위도 대기 파동 강화로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 정체하며 강하게 발달

5월 중순 우리나라 기후특성 모식도



- [중위도 대기 파동] 1 바렌츠해 부근 블로킹 형태로 기압능 강하게 발달
 2 바렌츠해(+)-바이칼호 서쪽(-)~우리나라 부근(+)에 걸쳐 중위도 대기 파동 강화
 3 우리나라 부근의 상층에 고기압성 순환 강화되며 하강기류에 의한 단열승온*으로 기온 상승에 기여
 * 고기압 중심의 하강기류로 인해 공기가 압축되어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 **[중위도 대기 파동 강화]** 상순에 중앙시베리아 부근에 발달하였던 상층 기압능이 중순에 들어서면서 대기 흐름이 원활해져 중앙시베리아 부근의 기압능이 우리나라로 이동하였고, 수일 동안 우리나라 부근에 정체하며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상층 고기압성 순환이 정체하며 더욱 발달한 데에는 중위도 대기 파동 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14일경부터 바렌츠해 부근에 블로킹 형태로 기압능이 강하게 발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위도 대기 파동이 강화되며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도 더욱 발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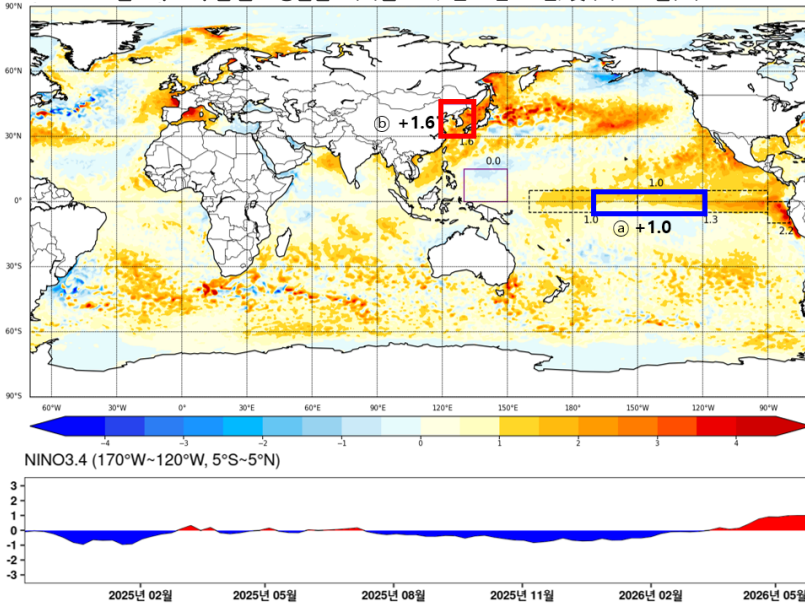
기후 감시 정보

해수면 온도

▶ 우리나라 엘니뇨(라니냐) 정의: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3.4 지역: 5°S~5°N, 170°W~120°W)의 3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면 온도의 평년편차가 +0.5°C 이상(-0.5°C 이하)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전 지구 해수면 온도 평년편차 (A)분포도(5월 24일~30일) 및 (B)시계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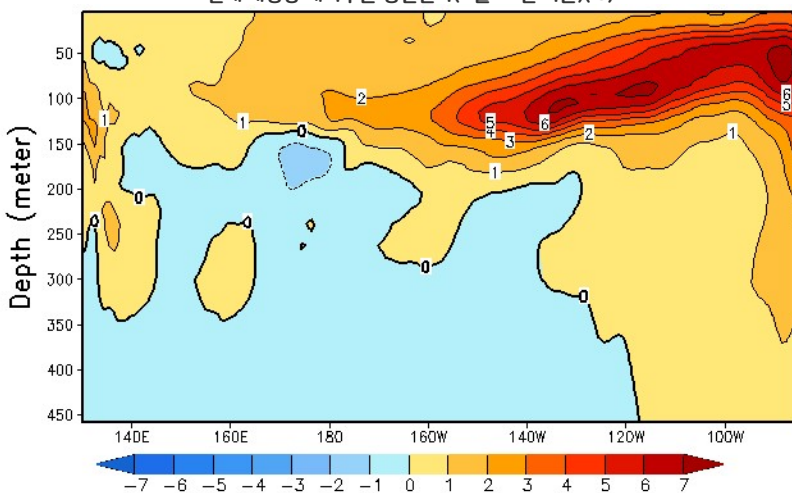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5°S~5°N, 170°W~120°W
 ⓑ우리나라 주변: 30°N~45°N, 120°E~135°E
 ※ 자료출처: NOAA OISSTv2(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2, 최적 내삽(버전2)된 해수면 온도)

• [전 지구 해수면 온도]

: 최근 해수면 온도는 열대 태평양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에서 평균 28.8°C로 평년보다 1.0°C 높았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18.5°C로 평년보다 1.6°C 높았습니다.

열대 태평양 해저수온 평년편차(5월 28일 기준)(°C)



※ 평년보다 높은 수온(빨강)/평년보다 낮은 수온(파랑)
 ※ 자료출처: NOAA/Pacific Marine Environmental Laboratory/
 Tropical Atmosphere Ocean project(www.pmel.noaa.gov/t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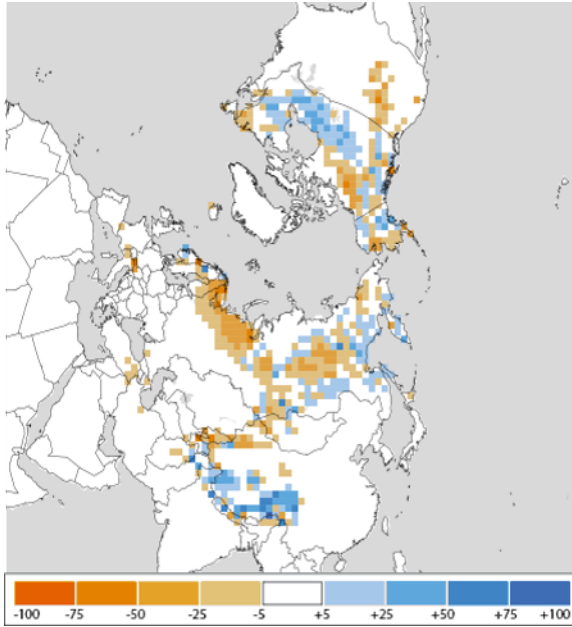
• [열대 태평양 해저수온]

: 5월 28일 기준, 서태평양(130°E~120°W) 수심 200m 아래에서 -1.0~0°C의 음의 해저수온편차가 나타나고 있고,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대 7°C 가량의 강한 양의 해저 수온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감시 정보

계절 감시 및 분석

눈덮임 편차(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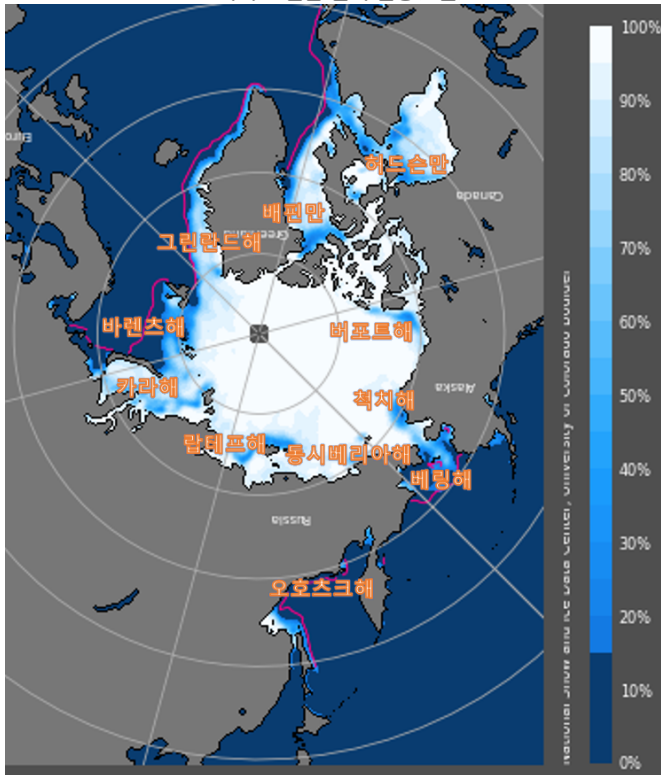
※ 자료출처: Rutgers University(눈덮임 평년편차)
 ※ 평년: 1970년 9월~2000년 8월

• [눈덮임 편차]

: 캐나다 동부 지역과 티베트 지역 부근에서는 눈덮임이 평년보다 많았고, 서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 티베트 지역의 눈덮임이 평년보다 많은 경우, 상층 티베트 고기압의 발달이 지연되면서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

북극해 얼음 면적 현황(5월)



▶ 실선: (분홍색)북극해 얼음 평년(1981~2010년) 면적
 ※ 자료출처: 미국 설빙데이터센터(NSIDC)

• [북극해 얼음]

: 북극해 얼음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바렌츠해와 베링해, 오호츠크해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분포를 보였고, 카라해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기온

- 전 세계적으로 5월 평균기온은 16.3°C였으며, 평년(15.0°C) 대비 1.3°C 높았습니다.
- [평년 대비 높은 지역] 북유럽, 아프리카, 바렌츠해~우랄산맥 부근, 중앙아시아, 우리나라, 호주, 캄차카반도, 캐나다 서부, 칠레
- [평년 대비 낮은 지역] 중유럽, 미국 북동부, 그린란드 남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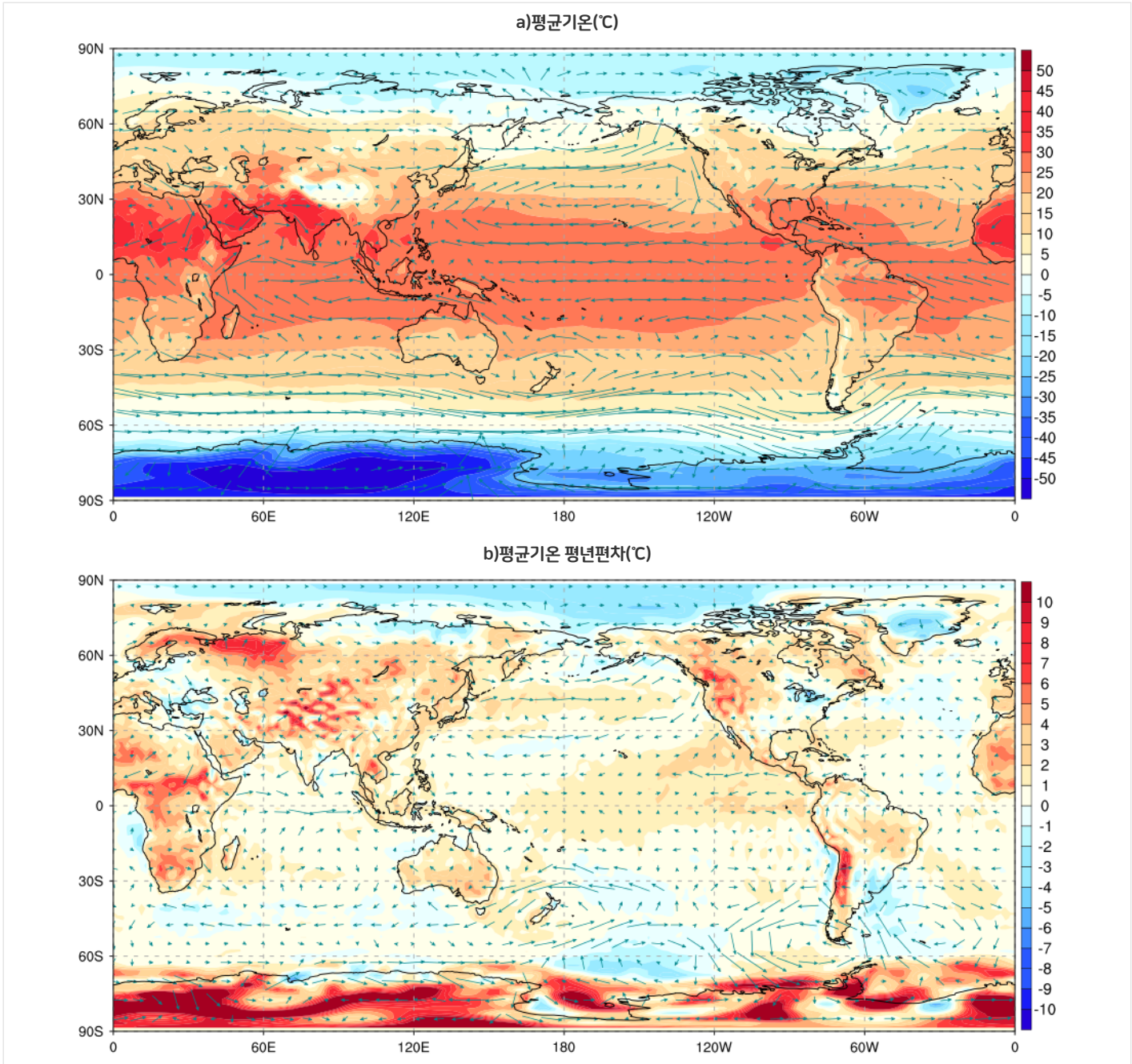


그림 a) ▶ 채색: (빨강)0°C 이상의 평균기온, (파랑)0°C 미만의 평균기온, 화살표: (청록색)850hPa 평균바람
 그림 b) ▶ 채색: (빨강)평년보다 높은 기온, (파랑)평년보다 낮은 기온, 화살표: (청록색)850hPa 평균바람 평년편차
 그림 b) 평균기온 평년편차(°C): 2026년 5월 평균기온 - 평년(1991~2020년) 5월 평균기온
 ※ 자료출처: 미국 환경예측센터(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석자료(2m 평균기온)
 ※ 전 세계 평균기온값과 평년편차값은 모델 기반 재분석자료를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강수량

- 전 세계적으로 5월 누적강수량은 106.3mm였으며, 평년(88.0mm)보다 18.3mm 많았습니다.
- [평년 대비 많은 지역] 북유럽, 아프리카 남부, 남아시아, 필리핀, 호주, 미국 동부, 남아메리카 북부
- [평년 대비 적은 지역] 아프리카 중서부, 미국 북부, 남아메리카 중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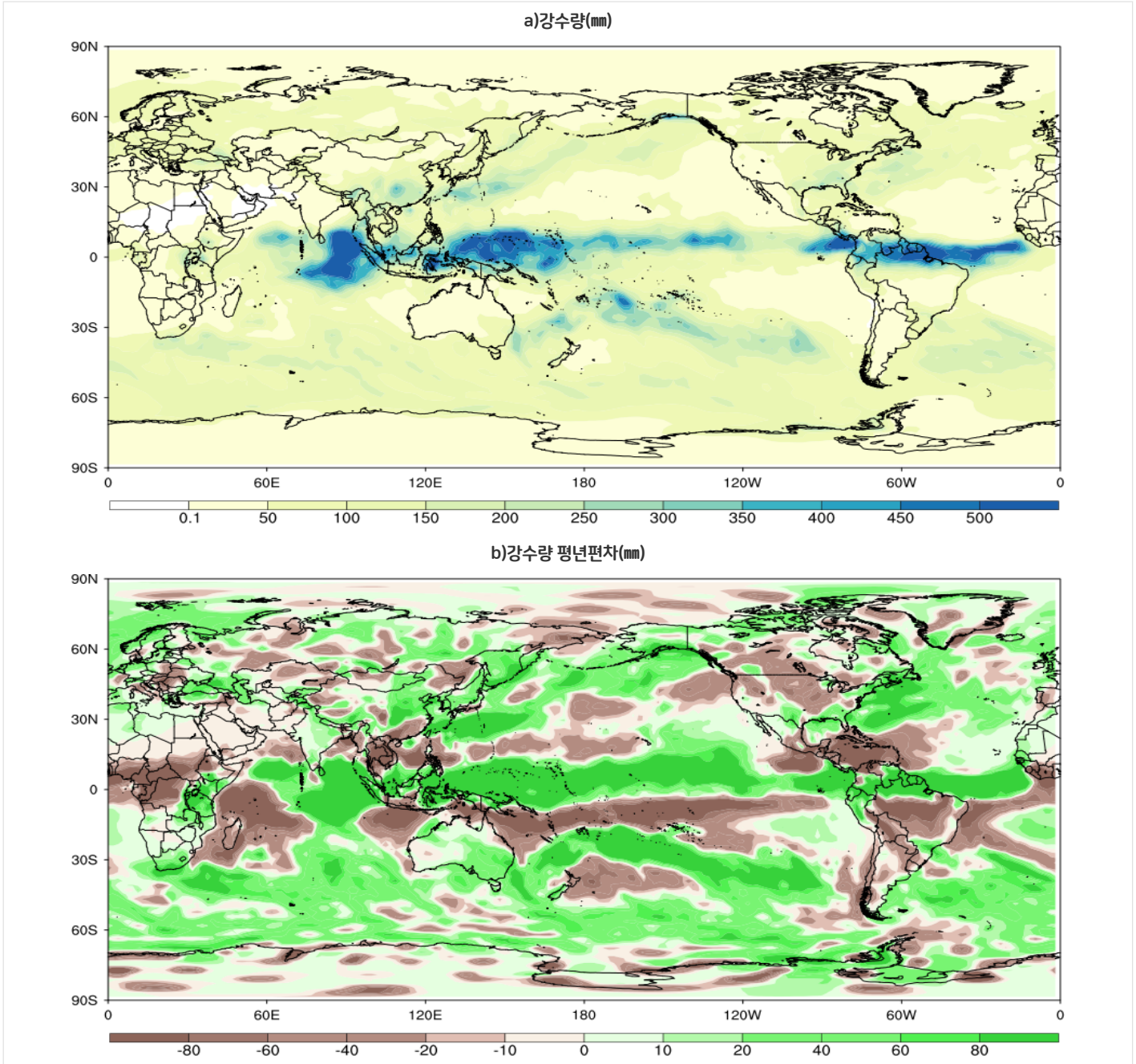


그림 a) ▶ 채색: (초록)월 누적 강수량

그림 b) ▶ 채색: (초록)평년보다 많은 강수량, (갈색)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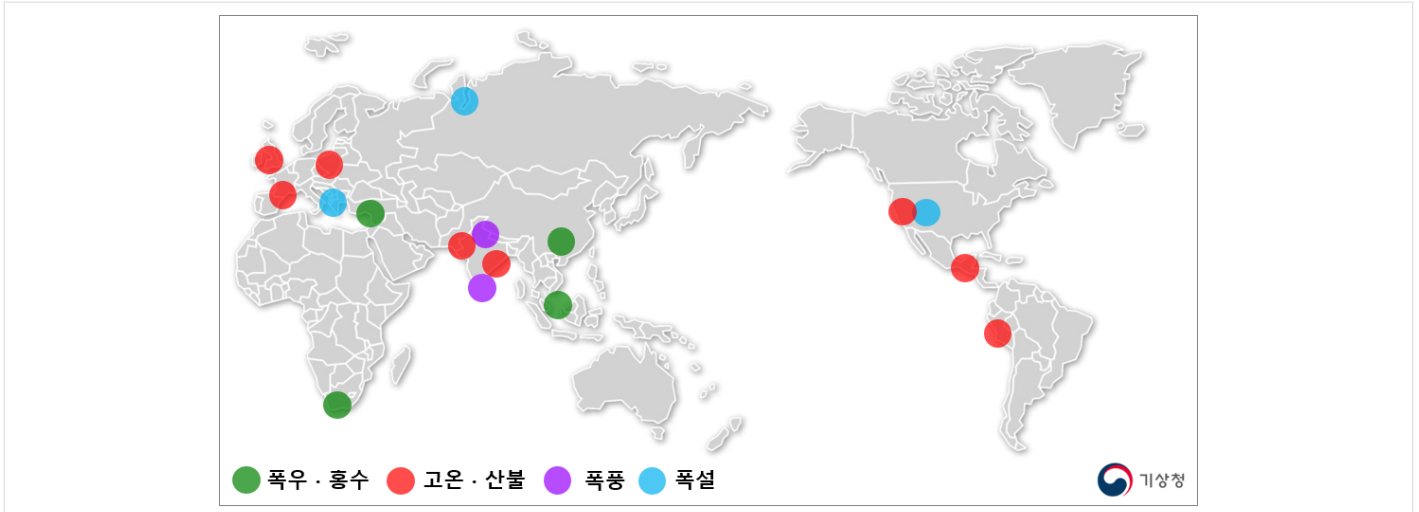
그림 b) 강수량 평년편차(mm): 2026년 5월 누적 강수량 - 평년(1991~2020년) 5월 누적 강수량

※ 자료출처: 미국 환경예측센터(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석자료

※ 전 세계 평균 누적 강수량값과 평년편차값은 모델 기반 재분석자료를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월 전 세계 기상재해



● 폭우·홍수

- (말레이시아)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5.6.)
- (남아프리카공화국) 비와 악천후로 인해 홍수 발생, '국가 재난' 선포(5.11.)
- (튀르키예) 집중호우로 강이 범람해 최소 12명 사망(5.12.)
- (중국) 중·남부 지역에 집중호우 발생, 최소 21명 사망, 휴교령, 도로 폐쇄(5.16.~20.), 충칭에 홍수로 11명 사망(5.23.~24.)

● 고온·산불

- (폴란드) 남동부 슐스카숲에서 대형 산불 발생, 200헥타르 이상의 산림 소실(5.7.)
- (온두라스) 남부에 기록적인 폭염, 일최고기온 42.1°C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 경신(5.14.), 대형 산불 발생, 약 44,000ha 소실(5.19.)
- (인도) 반다시 폭염으로 일최고기온 48.2°C, 조기 방학·휴교(5.19.), 최고기온 50°C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37명 사망(5.24.)
-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발생, 주민 7천200명이 대피, 약 556헥타르 소실(5.20.)
- (영국) 런던 낮 기온 35.1°C로 5월 역대 가장 더운 날 기록(5.26.)
- (프랑스) 랑드 37.1°C 기록, 전국적으로 32~35°C의 폭염, 7명 사망(5.26.)
- (페루) 해안·산악 10개 지역에 해안 엘니뇨 현상으로 늦가을 폭염 경보 발령(5.24.~26.)

● 폭풍

- (인도) 남부 우박을 동반한 폭풍 발생, 최소 8명 사망(5.2.), 우타르프라데시주에 폭풍,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111명 사망, 72명 부상(5.13.)

● 폭설

- (그리스) 중부 한파와 눈 적설, 지난 70년 동안 가장 추운 노동절 기록(5.1.)
- (미국) 콜로라도에 폭설, 이틀간 약 60cm 이상 적설, 로키산맥 국립공원 약 85.8cm 적설(5.5.)
- (러시아) 야말로네네츠에 폭설로 12시간 31cm 적설(5.11.)

※ 우리나라와 전세계 기상이슈에 대한 정보를 매주 주간기후이슈를 통하여 기후정보포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limate.go.kr/home/bbs/list.php?code=27&bname=scrap>)

기후 이슈

WMO, 전 지구 1년~10년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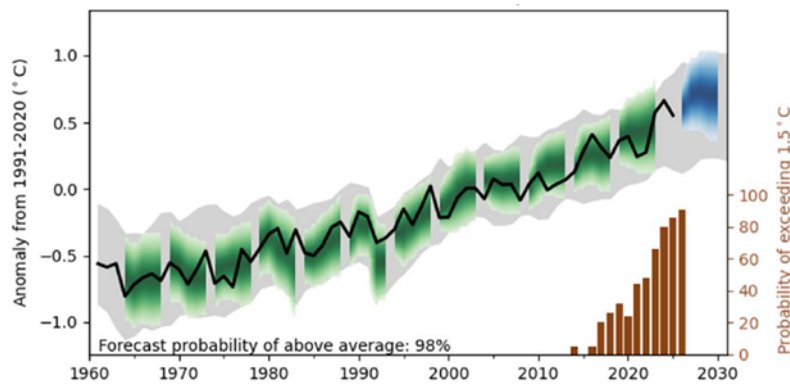
세계기상기구(WMO)는 5월 28일 전 지구 1년~10년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GADCU)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2030년까지 매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3~1.9℃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가 기록상 가장 더웠던 해인 2024년 기온을 초과할 확률은 86%입니다.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에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를 초과할 가능성은 91%이고 2℃를 초과할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낮으며, 2026~2030년 5년의 평균기온이 1.5℃를 초과할 확률은 75%입니다. 2026년 말 엘니뇨가 발생 가능하며, 2027년에 새로운 최고기온 기록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극 지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5년 겨울(11월~3월) 평균 북극 기온은 최근 30년(1991~2020년)보다 2.8℃ 높고, 같은 기간의 전 지구 평균기온에 비해 3.5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바렌츠해·베링해·오호츠크해의 해빙 감소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며, 2026~2035년 향후 10년 평균 해빙 농도는 3월(해빙 최대 시기) 북극 일부 해역(바렌츠해, 베링해 등)에서 최근 30년(1991~2020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에서도 1~10년 기후예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평년(1991~2020년) 대비 전 지구 평균기온이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가 2024년 기온을 초과할 확률을 90%로 예측하였습니다.

* 보고서는 파리협정의 1.5℃ 기준은 단일 연도가 아니라 장기 평균(약 20년 기준)을 의미하므로, 일시적 초과 자체가 목표 달성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1년~10년 기후 예측 선도센터인 영국 기상청(Met Office) 주도로 매년 작성하는 보고서로, 올해는 한국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을 포함한 13개 기관의 250개 앙상블 멤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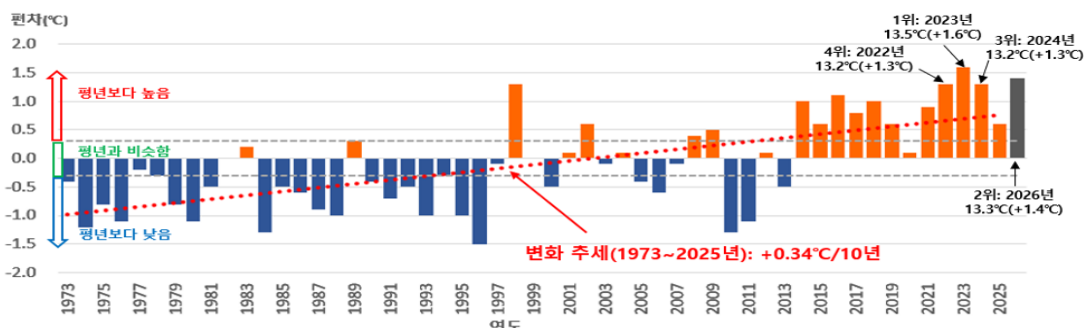


1850~1900년 대비 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에 대한 예측

출처: 세계기상기구(WMO)

봄철 기온 변화 특성

2026년 봄철 전국 평균기온은 13.3℃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평년(11.9℃)보다 1.4℃, 작년(12.5℃)보다 0.8℃ 높았습니다. 1973~2025년 동안 봄철 전국 평균기온 변화를 살펴보면, 10년당 +0.34℃로 뚜렷한 상승 추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올해까지(2020년 제외) 12개의 해에 봄철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최근 10년(2017~2026년)의 해 중에서 7개의 해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며 봄철의 뚜렷한 기온 상승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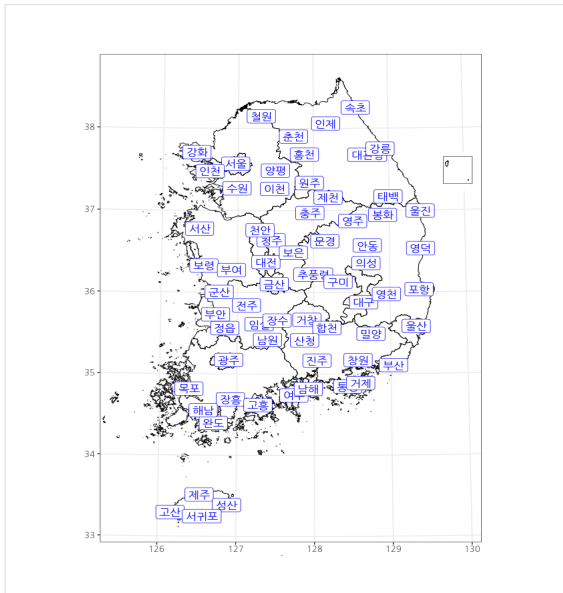


1973~2026년 봄철 전국 평균기온 편차 시계열



참고

지점 위치정보



▶ 지점 위치정보

- 전국 62개 + 제주 4개 지점 위치

※이상고온(저온) 발생일수: 이상고온(저온)은 평년(1991~2020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낮은) 극한현상으로 일최저·최고기온이 90퍼센타일을 초과(10퍼센타일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를 나타냄

※일교차 10°C 이상 일수: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의 차이가 10°C 이상인 날의 일수

※폭염일수: 일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날의 일수

5월 지점별 이상고온 일수 및 현상일수(일)

지점명	이상고온 일수		현상일수		지점명	이상고온 일수		현상일수	
	최고기온	최저기온	일교차일수	폭염일수		최고기온	최저기온	일교차일수	폭염일수
속초	5	7	14	0	강화	7	8	18	0
철원	8	9	24	0	양평	6	8	23	0
대관령	11	7	24	0	이천	8	6	25	0
춘천	6	7	26	0	인제	5	8	27	0
강릉	9	10	13	2	홍천	6	8	27	0
서울	7	5	19	0	태백	6	3	25	0
인천	7	8	9	0	제천	5	4	26	0
원주	8	7	25	0	보은	6	7	25	0
수원	7	4	21	0	천안	6	4	25	0
충주	10	5	26	0	보령	8	6	19	0
서산	8	5	21	0	부여	7	3	23	0
울진	6	12	12	1	금산	6	5	25	0
청주	10	10	22	0	부안	6	6	20	0
대전	7	2	24	0	임실	6	9	24	0
추풍령	3	4	25	0	정읍	6	5	22	0
안동	7	6	23	1	남원	6	5	23	0
포항	4	6	16	1	장수	7	5	24	0
군산	5	3	18	0	장흥	4	7	20	0
대구	5	4	21	4	해남	4	4	21	0
전주	7	4	21	0	고흥	5	6	21	0
울산	5	5	19	0	봉화	6	8	26	0
창원	7	4	18	0	영주	8	4	26	0
광주	6	4	21	1	문경	8	6	23	1
부산	9	9	8	0	영덕	6	6	21	0
통영	10	6	16	0	의성	8	6	25	2
목포	8	6	10	0	구미	9	6	25	4
여수	7	5	6	0	영천	5	6	25	2
완도	9	5	21	0	거창	4	6	26	2
제주	6	6	5	0	합천	6	6	25	3
고산	6	7	1	0	밀양	9	6	24	4
성산	3	11	8	0	산청	5	6	23	1
서귀포	7	8	6	0	거제	5	4	17	0
진주	4	4	25	0	남해	5	5	18	0